

외면받는 교장 공모제

경명마인드 갖춘 인사 선발 취지 무색... 교감들 '승진 경로' 전략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대폭 확대돼 시행되고 있으나 응모자가 소수에 그치는 등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경영 마인드를 갖춘 교장을 공모하려는 담초 취지와 달리 교감들의 지원경향이 두드러져 '승진 경로'로 전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12명·전남 25명 등 모두 37명을 공모제 교장으로 선발, 오는 3월 1일 임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 4곳, 전남 8곳에서 최소 공모 조건인 2명을 채우지 못해 재공모를 실시했다. 전남은 7개 학교에서 단 1명만 지원, 결국 적부심사로

교장을 뽑았다. 전체 지원율도 광주가 30명으로 2.5대1, 전남은 재공고까지 합해 57명이 지원한 2.4대1로, 지난해 9월 42명 선발에 160명이 응모했던 경쟁률 3.8대1을 크게 밑돌았다.

문제는 교장 공모제가 학교 경영을 개선할만한 능력을 가진 교감들은 거의 지원하지 않은 채 교감들만의 승진 경쟁 잔치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교과부 임용제정자를 확장한 전남의 경우 선발된 신입 학교장 대부분이 현직 교감인데다 교감에서 옮긴 경우는 5곳에 불과했다.

현직 교감들도 도서벽지 등에서 도시 근교 학교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모제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지역교육청과 본청 등에서 2차 심사를 거쳐 2배수로 좁혀면 교육감이 1명을 선정해 교과부에 제청한다. 교과부는 교육현장 인사비리 차단, 연공서열식 인사구조 타파, 공모 교장 자율권 확대 등을 위해 교장 공모제를 확대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공모제가 정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교장 공모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빙을 원하는 학교 구성원은 물론, 교직 사회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공모제가 정착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교장 공모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빙을 원하는 학교 구성원은 물론, 교직 사회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흑피옥 조각상 발굴 김희용씨 '중국 문화계 10대 인물' 선정

초고대 문명의 유물로 추정되는 흑피옥(黑皮玉) 조각상 발굴자인 김희용(61·사진·광주시 북구 매곡동)씨(광주일보 2007년 9월 11일 1면)가 '중국 문화계 10대 인물'에 선정됐다.

중국 문화부 산하단체인 국제사의발전 조직위원회 등은 16일 중국 국홍호텔에서 중국 문화계 10대 인물 선정식을 열고 문화와 역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씨를 10대 인물로 선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문화재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천년금장(千年金獎·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0대 인물로 선정된 인사들

은 모두 중국에서 손꼽히는 사실 박물관장, 소장·소집가 등으로, 김씨는 유일한 한국인이다.

중국 문화부가 한국인인 김씨를 중국 문화계를 대표하는 10대 인물로 선정된 것은 16년 동안 흑피옥 매장지를 추적·발굴한 노력과 이 유물의 실제, 역사·고고학적 가치를 공식 인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흑피옥은 최근 중국 민간 10대 국보로 지정됐다.

한편, 김씨는 이날 행사에서 흑피옥 매장지에 대한 공개발굴에 나선 것을 중국 국가박물관에 촉구하는 내용의 발굴 제안서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광주일보의 최초 보도로 국내외의 관심이 촉발되자 지난 2008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자신이 소장한 520점의 흑피옥 조각상 전부를 중국 당국에 기증 의사를 밝히고 흑피옥을 정식 발굴해줄 것을 촉구했다. 흑피옥은 중국 내몽고 자치구 우란차투(烏蘭察布)시 외곽 화산지대에서 발굴된 표면에 검은철이 입혀진 옥(玉) 조각상들이다. 발굴자 김씨는 조각상들이 중국 고대문명의 하나인 홍산문화(紅山文化: BC 4000~BC3000년) 이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0분 해질 17시 45분 달뜨기 15시 01분 달지기 05시 04분

동장군 '여전'
구름 많고 눈이 계속되겠다.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다.

구분	구름	최저	최고
광주	구름많고 한때 눈	-10/-1°C	
목포	구름많고 눈	-7/0°C	
여수	맑음	-8/1°C	
나주	구름많고 가끔 눈	-10/0°C	
완도	구름많음	-6/1°C	
구례	구름조금	-12/0°C	
해남	구름많고 눈	-8/1°C	
장흥	구름많고 한때 눈	-9/1°C	
순천	구름조금	-9/1°C	
영광	구름많고 눈	-12/-2°C	
진도	구름많고 눈	-7/-1°C	
전주	맑음	-13/-1°C	
군산	구름조금	-11/-1°C	
남원	맑음	-15/-2°C	
옥산도	구름많고 눈	-4/1°C	

구분	중하	파고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6/2	-6/3	-6/2	-7/2	-6/3	6/2

이주여성 지원센터 전화번호부 배포

범원, 5개 언어로 제작
범원이 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 단체들에 대한 전화번호부를 5개 언어로 제작·배포했다. 16일 광주지법 가정지원(지원장 강신중 부장판사)에 따르면 범원은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전화번호부를 배포했다. 이 전화번호부는 광주·전남에 많이 거주하는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위해 한국어를 비롯, 5개 국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담아 명함 크기의 수첩형태로 제작됐다. 이 수첩은 총 17만9500권이 제작돼 광주지역 5개 구청과 전남지역 시·군청, 읍·면사무소 등 광주·전남 252개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비치됐다. 강신중 광주지법 가정지원장은 "이번 전화부 배포는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 단체들의 연락처를 이주여성들의 모국어어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한국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미나리는 추워야 제맛" 광주·전남지역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맹위를 떨친 16일 나주시 노안면 화산리 미나리원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흑한으로 농촌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이주 노동자들은 한달 12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기념재단 이사장 김준태·정동년 경합

5·18 기념재단 이사장 후보가 2명으로 줄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4일 제 10대 이사장추천위원회 결과 김준태 시인과 정동년 5·18 민중항쟁 30주년 행사위원장 2명이 후보로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사장 후보에 지원했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직전 '광주의 화합에 기여하고 싶다'며 자진 사퇴했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이사회(14명)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Ion(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개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

광주 MBC 문화탐방 영암보충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광주MBC 문화탐방"** 을 치십시오.

방콕·앙코르왓
무안 ↔ 방콕 직항 전세기
2011. 1. 30 ~ 3. 27 (총 17회)

목요일 (3박 4일) 출발
2월 3, 10, 17, 24일 / 3월 3, 10, 17, 24일

일요일 (3박 5일) 출발
1월 30일 / 2월 6, 13, 20, 27일 / 3월 6, 13, 20, 27일

관광 799,000 부터~

캠보디아 육로 899,000 부터~

골프 1,049,000 부터~

허니문 5일 초특급호텔·럭셔리호텔 1,349,000원

● 포함 사항: ● 일정에 따른 현지 호텔비(2인1실), 식사비, 입장료, 현지관광버스 ● 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 팀 일당 US\$30~40/인 별도
● 국제선항공료, 무안 출/공항서, 전정보통료, 1인당 여행자보험 ● 유류할증료 68,000원 (성인/아동 동일)
● 알카자소 및 천황안마 2시간 (1회 포함) ● 캄보디아 육로 버스 비용 별도 \$3/인 - 사전에 지정요
● 특식 (태국식-사트사트, 수끼, 호텔내부드, 한식-삼겹살) ● 골프장내부대금 - 골프장에 따라 캐디피, 전동카트, 캐디

크리스탈타이항공 · 광주 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영국정부인가조건) © 랜덱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0